

YONHAP | 연합르페르
REPÈRE

- 목차
- 과월호
- 정기구독신청
- 사진구입



Travel_SINGAPORE

먹고, 마시고, 놀기 좋아하는 당신을 위한 여행 이야기
Taste Singapore

■ 사진·글/이진옥 기자

여행의 목적이 순전히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남들 앞에서 숨길 필요는 없다. 굳이 호모루덴스(Homo Ludens)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내면에는 '노는 것을 좋아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기왕 먹고 놀러 가기로 했다면 확실히 본전을 뽑을 수 있는 여행지를 선택하자.



여행의 목적이 순전히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남들 앞에서 숨길 필요는 없다. 굳이 호모루덴스(Homo Ludens)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내면에는 '노는 것을 좋아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기왕 먹고 놀러 가기로 했다면 확실히 본전을 뽑을 수 있는 여행지를 선택하자.

싱가포르는 여행지로서 최고로 적합한 곳은 아니다. 적도에서 가깝기 때문에 일년 내내 덥고 습하며 국토가 작기 때문에 돌아다닐 곳도 많지 않다. 물가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비싸며 저렴한 게스트하우스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그뿐만이 아니다. 담배 가격은 우리나라 3배에 달하며 면세 담배의 반입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소개해도 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들은 싱가포르를 일찌감치 포기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렇게 덥고 물가가 비싸고 작은 나라에 매년 6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방문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은 615만 명으로 싱가포르의 면적이 서울과 비슷한 것을 감안한다면 싱가포르에 대한 여행자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더운 것은 싱가포르만의 단점이 아니다.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나 하와이, 몰디브도 덥기는 마찬가지다. 더운 것이 정말 싫다면 알래스카나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싱가포르에서는 안전을 보장받으며 여행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여행지를 고르면서 '안전'이란 기준에 대해서는 소홀히 생각하고 있지만 단체여행이 아닌 개별여행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이다. '안전'은 치안을 비롯해 각종 관광지 시설, 교통, 쇼핑, 상거래 등 여행자들이 낯선 곳에서 쾌적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포함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마약을 소지한 사람에게 사형까지 집행할 정도로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를 가한다. 때문에 밤늦게 낯선 거리를 혼자 걸어도 안전하며 길거리 싸움도 보기 힘들다. 방종을 즐기는 사람들은 싱가포르가 비인간적이고 경직됐다고 불평하지만 대다수의 여행자들은 공권력의 보호를 최대한 받는다.

이런 '안전'한 싱가포르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싱가포르는 분명히 당신의 모든 희망을 들어줄 수 있는 '종합선물세트'는 아니다. 하지만 당신이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호모루덴스(Homo Ludens)형 인간'이라면 싱가포르는 당신을 충분히 만족시켜 줄 것이다. 남들은 우아하게 역사 유적지나 박물관 등을 돌아다니는데, 여행의 초점을 기본적인 욕구 해결에나 두었다고 속스러워 할 필요는 없다. 싱가포르는 중국, 말레이, 인도 등 3개 민족과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외국인이 모여 사는 나라답게 다양한 먹을거리와 놀거리를 지니고 있다. 단일민족인 우리나라만 해도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데 여러 문화가 복합된 싱가포르는 말할 것도 없다. 가격도 합리적이다. 값비싼 먹을거리와 놀거리는 과감히 무시해도 된다. 싱가포르 현지 사람들이 헛된 돈은 결코 쓰지 않기 때문에 여행자 특유의 과소비를 하지 않더라도 '물 좋은' 곳에서 실컷 놀고 먹을 수 있다. 이것을 즐기고 싶다면 변화가 뒷길로 올라가 보자. 당신이 보지 못한 싱가포르의 먹고 노는 모습이 기다리고 있다.



Taste M



Breakfast

싱가포르를 여행하면서 호텔 조식 뷔페에 실증난 사람이라면 아침 일찍 거리로 나서보자. 외식문화가 생활화된 싱가포르에서 음식점들은 아침부터 손님을 맞이하느라 분주하다. 면이나 수프에서부터 토스트 까지 메뉴도 다양하다.

이른 아침 싱가포르의 빌딩 밀집 지역을 오가다보면 플라스틱 봉투에 커피와 빵을 넣어 출근길을 서두르는 직장인들이 눈에 많이 띈다. 오전 7시만 돼도 변화가 베이커리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동네 호커센터도 손님들을 맞느라 분주하다. 외식문화가 발달된 싱가포르에서는 아침식사도 밖에서 해결하는 사람이 무척 많다. 가격 또한 저렴하다. 2000~3000원 정도면 국수나 죽, 커피와 빵을 먹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카야(Kaya) 토스트와 커피는 현지인들은 물론 여행자들에게도 아침식사 대응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말레이어로 ‘계란의 달콤한 맛’이라는 뜻의 카야는 코코넛 우유와 달걀, 설탕 등을 넣어 만든 잼이다. 아침에는 세트메뉴가 가장 인기가 있다. 2000원 정도의 세트메뉴를 주문하면 커피와 토스트, 반숙의 계란이 나온다.

카야 커피는 커피에 연유를 넣은 것으로 우리나라 ‘다방 커피’와 비슷한 맛이며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토스트는 버터가 발라져 무척 고소하다. 함께 따라 나오는 반숙 계란은 기호에 따라 간장을 넣어 먹는다. 현지에서 유명한 카야 토스트 전문점으로는 ‘야쿰 카야 토스트(Ya kun Kaya Toast)’, ‘토스트 박스(Toast Box)’, ‘킬리니 코피티암(Killiney Kopitiam)’ 등이 있다. 커피와 토스트 맛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메뉴 구성은 대부분 비슷하다.



로컬 음식으로 중국식 죽인 쪽(Jok)은 아침식사나 해장용으로 많이 애용되며 별다른 향료가 들어가지 않아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다. 국물이 있는 음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완탕 수프(Wanton Soup)가 좋다. 새우나 생선을 갈아 만든 완탕을 담백한 국물에 넣은 음식으로 기호에 따라 국수를 추가할 수도 있다. 아침 식사로는 다소 기름지지만, 호커센터의 대표적 음식으로는 락사(Laksa)와 호키엔 미(Hokkien Mee)

가 있다. 중국인과 말레이인의 혼혈인 페라나칸의 음식인 락사는 코코넛 밀크와 고추로 우려낸 수프에 국수를 넣은 음식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에는 락사의 강한 맛 때문에 거부감을 갖지만 나중에 중독이 될 정도로 깊은 맛이 있다. 호키엔 미는 노란 계란 국수에 숙주와 새우 등 고명을 얹은 면 요리로 호커센터 어디에서나 맛볼 수 있는 대중적인 음식이다.



Taste 02 Lunch

음식애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음식점은 무척 많지만 음식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대부분 한식과 일식, 중식, 그리고 서구식 레스토랑에 국한되고 있으며 제3세계의 음식들은 거의 찾기 힘들다.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위해 거리에 나서도 눈에 띄는 것은 고기, 생선회, 짜개, 탕을 파는 음식점뿐이다. 간혹 있어도 본고장과는 다른 맛과 비싼 가격 때문에 외면을 받는다. 평소 인도 커리요리에 관심이 있었더라면 싱가포르 여행을 하면서 리틀 인디아에 둘러보자.

싱가포르를 돌아다니다 보면 지역마다 다른 냄새가 난다. 회사들이 밀집해 있는 시티홀 근처는 스타벅스 커피와 고소한 빵 냄새가 나며, 차이나타운에서는 음식을 볶고 튀기는 기름 냄새가 난다. 인도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리틀 인디아에서는 커리 냄새가 진동한다. 그동안 인스턴트 커리에 싫증을 느꼈다면 리틀 인디아를 방문해 볼만하다.

리틀 인디아는 인도를 비롯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에서 건너온 인도계 사람들의 중심지다. 이들은 1819년부터 싱가포르에 들어와 정착했으며 중국, 말레이 문화와 함께 싱가포르의 독특한 다민족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MRT(지하철)를 타고 리틀 인디아에 내리면 특유의 인도음

악과 함께 강한 양신료 냄새가 코끝을 사극안나. 거리는 그동안 싱가포르의 다른 시역에서 모았던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같이 떠들썩하며 복잡하다. 길가에서는 인도 음악 테이프, 장신구, 인도계 사람들이 결혼식이나 사원에 바칠 때 사용하는 화환, 인도 여성들이 미간에 붙이는 빈디와 남성용 하의인 도티, 각종 향신료와 인도산 실크가 판매되고 있다.



리틀 인디아 주도로 주변에 있는 인도요리 음식점들은 대부분 정통 본토요리와는 조금씩 다르다. 인도요리가 싱가포르에 들어온 후 다민족의 다양한 입맛에 맞게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리 피시 헤드(Curry Fish Head)가 대표적인 예다. 생선 대가리와 커리로 만든 커리 피시 헤드는 인도에는 없는 음식이다. 인도사람들은 생선 대가리를 먹지 않기 때문에 인도요리라기보다는 싱가포르 인도계 요리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하다. 인도요리는 밥과 빵으로 구분된다. 밥은 커리와 함께 손으로 먹으며 빵은 발효시키지 않고 화덕에서 구워서 역시 커리와 같이 먹는다.

리틀 인디아에서 인도요리를 맛있게 먹으려면 바나나 리프 아폴로(Banana Leaf Apolo)를 추천한다. 특히 바나나 리프 아폴로의 커리 피시 헤드는 싱가포르에서 제일 맛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레스토랑의 주방은 투명한 유리창으로 만들어져 있어 요리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로는 대표 음식인 커리 피시 헤드를 비롯해 탄두리 치킨(Tandoori Chicken), 사모사(Samosa), 마살라 파파드(Masala Papad), 로티프라타(Rotiprata) 등이 있다. 탄두리 치킨은 인도 전통 향신료에 닭고기를 하루 정도 재운 뒤 화덕에 구운 음식으로 기름기가 없고 양념이 매콤하

기 때문에 우리 입맛에 맞다. 또 사모사는 인도식 만두로 삼각형이며 감자와 야채, 닭고기와 향료를 넣어 만든다. 마살라 파파드는 바삭거리는 인도식 또띠아이며, 로티 프라타는 남인도에서 즐겨 먹는 음식으로 밀가루 반죽을 구운 뒤 커리에 찍어 먹는다. 향신료의 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재료 고유의 맛은 구분할 수 없지만 특별히 커리나 향신료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면 여행지 별미 음식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Taste 03 Dinner

싱가포르는 전체 인구의 77%가 중국계다. 예부터 '입는 것'보다 '먹는 것'을 중시하는 민족답게 이곳에서도 다양한 중국요리를 즐길 수 있다. 인도, 말레이 등 다른 민족의 문화와 융합돼 오히려 본토보다 중국요리가 더 다양하고 풍부하다.

싱가포르에서 중국요리를 즐기려면 굳이 차이나타운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인구의 대부분이 중국계이기 때문에 곳곳에 중국요리 음식점이 들어서 있다. 거창한 요리가 아닌 간단한 중국요리는 주택가 호커센터(Hawker Centre)에서 먹을 수 있고, 이곳은 심야까지 영업을 한다. 중국요리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저녁식사가 좋다. 기름에 볶고 튀기는 조리법이 많은 중국요리는 아무래도 아침식사로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현지의 중국요리 음식점에서도 주간보다 저녁에 손님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싱가포르의 중국요리는 본토처럼 무겁지 않다. 대부분의 요리에 말레이, 인도 등 다른 민족의 문화가 섞여 있다. 본토 중국요리 가운데 이곳에서 인기가 높은 것은 광둥요리로, 상어지느러미 수프, 새끼돼지구이와 닭튀김, 그리고 딤섬이 있으며 다른 지방 요리로는 베이징 덕, 치킨라이스(Chickenrice)를 선호한다. 치킨라이스는 중국계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즐기는 싱가포르 국민 음식이다. 치킨라이스는 본래 중국 하이난에서 즐겨 먹는 찜닭 요리로 닭 국물로 지은 밥이 나온다. 주택가 호커센터에서 3000원 정도면 즐길 수 있다.



이밖에 순수 중국요리는 아니지만 외국인에게 이미 많이 알려진 크랩요리와 스팀보트(Steam Boat) 요리도 있다. 특히 크랩요리는 주택가뿐만 아니라 본토 대부분의 중국인도 즐겨 먹는 요리로, 음식점에서

boat)가 있다. 특히 크랩요리는 소더 방법만 나올 뿐 내부준의 중국, 인도, 빌레이 요디 음식집에서 판매하고 있다. 크랩요리에는 칠리크랩과 페퍼크랩이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맵고 달착지근한 소스가 배어 있는 칠리크랩을 좋아한다. 스팀보트는 우리나라 신선로나 일본의 샤브샤브와 비슷한 요리로 닭고기를 우려낸 육수에 주로 두부, 해산물, 야채를 넣어서 먹는다. 중국요리 전문점에서는 건강에 좋은 한방재료를 육수에 첨가하기도 한다.



Bright Midnight in Singapore

사람들은 유럽이나 미국을 여행 다니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밤에 놀거리가 없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당황한다. 오후 7시를 넘기면 모든 상가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쓸쓸스러울 정도로 한산하다. 고작해야 조그만 맥주 바가 전부다. 모처럼 여행을 다니면서 24시간을 활용하려는 여행자의 입장에서 본전 생각이 날 정도로 아쉽기까지 하다. 싱가포르의 밤에 노는 것을 좋아하는 당신의 욕심을 충분히 채워주는 곳이다.

Information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섬과 63개의 작은 섬들로 구성된 국가로 본 섬의 면적은 682km²다. 인구는 400만 명이고, 중국계(77%), 말레이계(14%), 인도계(8%) 등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용어는 영어, 말레이어, 인도 타밀어, 중국어이다. 싱가포르 국민들은 교육과정에서 자신들의 민족 언어와 영어를 의무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대부분 2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 지난 1965년 8월 9일 말레이연방으로부터 독립한 후 리관유(李光耀) 총리의 청렴하고 강력한 경제개발 정책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 현재 세계 중계무역 중심지이자 정유, 물류, 조선, 금융 등의 거점이기도 하다.

자유 VS 패키지 여행 국토가 좁기 때문에 자유여행이 적합하다. 주소체계가 정확해 지도 한 장만 있어도 목적지를 찾기가 쉬우며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싱가포르 어느 곳이나 버스, MRT, 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요금도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하기에 부담이 없다. 택시는 바가지요금이 절대 없으며 냉방이 잘되고 쾌적하다. 싱가포르 남쪽에 서 북쪽 끝까지 택시로 간다고 하더라도 2만 원도 안 나오기 때문에 2~3명이 함께 움직이는 여행이라면 택시로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싱가포르 자유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들은 항공권과 호텔이 함께 포함된 에어텔(AIRTEL)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기후와 복잡 적도에서 약 160km 북쪽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열대성 몬순기후다. 연평균 기온은 25~32°C이며 습도가 매우 높다. 스콜이 자주 내리기 때문에 접이식 우산을 항상 휴대해야 한다. 실내 시설을 많이 둘러볼 사람들은 냉방이 매우 강하므로 긴팔 셔츠나 재킷을 입고 가는 것이 좋다.



쇼핑 명품에서부터 중저가 상품까지 다양하다. 명품은 우리나라 면세품과 가격 차이가 별로 없지만 중저가 의류는 매우 저렴하다. 특히 열대기후 지역답게 여름 의류가 많으며 '자라(ZARA)', '갭(GAP)', '바나나 리퍼블릭(BANANA REPUBLIC)' 등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는 브랜드들도 많다. 면세국가인 싱가포르에서는 시내 면세점이나 공항 면세점이나 가격 차이가 별로 없지만 술, 담배, 화장품 등 공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은 출국 시 공항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창이 국제공항 세금 환급창구는 무척 혼잡하기 때문에 장시간 기다려야 하며 항공기 탑승시간

이 임박한 경우에는 세금 환급을 포기해야 할 경우도 있다.

유의사항 싱가포르는 담배 반입이 절대 안 된다. 여행자가 개봉해 휴대한 1갑의 담배는 허용하

지만 그 이상 초과했을 경우는 과세를 한다.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 세관원들은 입국 여행자들에게 친절하고 검사도 별로 하지 않지만 휴대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아주 엄격하게 법대로 처리한다. 싱가포르 담배 반입규정을 잘 모르는 우리나라 여행자들이 담배를 가지고 입국하다 세관원들에게 적발돼 담배도 뺏기고 고액의 벌금을 내는 경우가 간혹 있다.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 반입자는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므로 모르는 사람의 짐 운반 부탁은 되도록이면 거절하는 것이 좋다. 에어컨이 설치된 시설에서는 흡연이 금지되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음식물을 먹을 수 없다. 도로 무단횡단, 음주 고성방가, 쓰레기 투기에도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여행자들이 굳이 위축될 필요는 없다.

[▲ top](#)